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성료

시나리오·무대·소품·연기 모두 무주군민이 소화... 지난해 11월 이은 앙코르 공연 호평 이어져

무주군민이 만든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이 지난 3일 오후 2시와 7시 2차례 무대에 올랐다.

(사)무주문화원(원장 맹갑삼)과 극단 ‘그림 있는 풍경(대표 양상모)’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 홀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지난해 11월에 이은 앙코르 공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연극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는 조선 후기 화가 최북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으로 △돈과 권력에 굽히지 않았던 화가 최북, △어려운 형편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최북, △최북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그의 어머니와 △한쪽 눈으로 그림을 그리던 최북의 이야기가 민요와 타령, 굿이 접목된 형태로 무대에 올라 큰 감동을 선사했다.

(사)무주문화원에 따르면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의 시나리오를 비롯해 연기와 연출, 무대, 소품, 분장 모두를 극단 ‘그림 있는 풍경(단원 15명)’이 소화해 냈다.

극단 ‘그림 있는 풍경’의 양상모 감독은 “지난해 무대가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앙코르 요청을 받았고 더 많은 분들과 최북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가난했지만 화가로서 자존심



무주군민이 만든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을 지키며 살았던 무주사람 최북의 일생을 재연해 냈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앞으로 다 지역과 어우러져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에서 태어난 호생관 최북(1720~미상)은 영정조 시대의 화가로 당시 중국 산수 표현을 선호했던 경향을 비판하고 조선의 산수를 그린 진경산수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예술가로서의 기질이 출중해 그림뿐만 아니라 시(詩)와 서(書)에도 능했던 인물로 꼽힌다. 대표작으로는 ‘풍설야귀인도’, ‘추경산수도’와 ‘한강조어도’ 등이 있으며 2012년 문을 연 무주 최북미술관(제1종 공립미술관)에서는 ‘괴석도’와 ‘공한’, ‘산수도’ 등 최북의 진품 5점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정의 달 ‘태권도원’으로 떠나자”

어린이날 무료 입장·공연·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가정의 달 첫 주를 맞아 ‘태권도원 무료입장’과 ‘완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특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5일 어린이날에는 입장료 없이 에어바운스 놀이와 전통놀이 체험, 태권도원 상설공연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가족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태권도원 상설공연 ‘원’은 11시와 오후 2시에 2회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연장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증정은 물론 공연 관람 후 공연단원들과 ‘기념촬영’을 비롯 ‘태권 댄스, 태권도 미트 팡팡’ 등 체험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5일과 6일 양일간 ‘비단 위에 그리는 사군자’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11시부터 현장 선착순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야간 태권도원 숙박 및 방문 고객을 위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6일 밤 7시, 완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태권도원에서 만나는 클래식 오디세이 - 거장의 발자취’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과 ‘하이든 협주곡 마장조 3악장 알레그로’,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등 볼륨을 클래식 선율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AR·VR로 태권도를 즐기는 ‘체험관’에서는 태권 격파왕과 전자 겨루기 등의 콘텐츠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한 어린이에게 태권도원 캐릭터인 ‘태강이 풍선 응원봉’을 선물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전주문화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3일 대학 본관에서 (재)전주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옥선 대표이사과 황인수 교육부총장 및 홍성덕 대외부총장, 음악학과장 김영신 교수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역 내 차세대 문화예술인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교류 △유기적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문화예술전반의 정보 교류 등 각종 연대활동 △라이징스타 시리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재학

생 및 졸업생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등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 △그 외 기타 연계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 인재 발굴 및 양성에 있어 전주대학교 재학생들과 교류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신 학과장은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에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하고, 재학생들이 현장실습과 취업의 기회가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방자, 춘향을 말하다’ 광한루원 야간 상설공연

남원시립국악단, 무료 진행

남원시립국악단의 2023년 남원창극 ‘방자, 춘향을 말하다’ 광한루원 야간상설 공연을 5월 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광한루원 일매집에서 관객들을 맞이하며, 상반기 5월 6일~7일 15일, 하반기 9월 2일~23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공연에 목말랐던 관객들을 위해 올해는 무료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창극 공연은 전통 소리에 집중했던 기존의 창극에 방자라는 캐릭터를 부각시켜 새로운 시선으로 춘향을 해석, 전반부는 춘향

의 편지를 들고 한양으로 떠나는 최고령 방자 ‘환갑이’가 구수한 사투리와 입담으로 춘향과 몽룡의 첫 만남, 이별, 그리고 번사포의 등장까지 일인극으로 극을 이끌어 가며, 극 사이사이 춘향이 몽룡을 에타게 그리워하는 사랑가와 춘향의 한이 섞인 이별가 대목은 화려한 군무와 국악 관현악 연주로 극을 풍성하게 한다.

후반부는 이몽룡의 전연덕스러운 연기와 방자의 언어유희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창극은 임현빈(몽룡 역), 조선하(춘향 역), 김운선(일매 역), 고현미(환갑 역) 등 대령상을 수상한 명창의 출연으로 판소리의

장식을 선보이며, 현장감 넘치는 국악 연주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립국악단은 5월부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시작, 민속악을 중심으로 공연하는 ‘전통소리청’은 5월 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광한루원 완월정에서, 다양한 장르의 국악버싱킹이 펼쳐지는 ‘광한루의 밤 풍경’은 6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광한루원 일대에서 공연하고, 이 외에도 올해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 기획공연 만복사저포기(가제), 찾아가는 국악공연, 국악의 성지 흥겨운 우리가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 신현실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

우석대학교 신현실(조경학과) 교수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으로 연임됐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재위원 100명과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했다.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으로 연임된 신 교수는

오는 2025년 4월 말까지 2년 동안 분과위원들과 함께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심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신 교수는 “지난 3월 문화재청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유산체계로 본격 전환됨에 따라 자연유산을 위



신현실 교수

시한 국가유산 보존과 활용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들과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재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